

구약에 나타난 야웨(하나님)

경외의 삼

The Fear of Yahwah/ God in the Old Testament

신득일 교수

Prof. Dr. D. I. Shin

1. 서언	_ 17
2. ס 의 어원과 용법	_ 18
3. 야웨 경외와 공포감	_ 20
4. 야웨 경외와 예배	_ 21
5. 야웨 경외와 믿음	_ 24
6. 야웨 경외와 행복	_ 28
7. 야웨 경외와 지혜 / 지식	_ 31
8. 야웨 경외와 허무	_ 35
9. 야웨 경외와 윤리	_ 38
10. 야웨 경외와 세속화	_ 41
11. 결어	_ 43

주제분류 | 구약신학(Old Testament Theology)

주요어 | 경외, 경건, 지혜, 윤리, 세속화(fear, piety, wisdom, ethic, secularization, vanity)

요약문 |

본고의 목적은 구약성경에 나타난 '아웨 경외'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 현실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경외'란 히브리어 원형 סָּׁרָ 를 번역한 것인데 그 어원은 확실하지 않다. 이 단어는 짧은 본문에서도 다양한 의미를 지니기에 그 정확한 의미는 문맥 가운데서만 파악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 말은 하나님과 거리감을 두는 공포감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것은 죄지은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신명기에서는 이 경외라는 말이 사랑의 개념과 맞물려있다. 아웨를 경외하는 것은 순종이 따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경외는 사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아울러 경외란 아웨를 섬긴다는 말과 나란히 쓰여서(신 6:13; 삼상 12:14, 24; 왕하 17:33, 36) '예배하다'란 의미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예배의 방법과 태도에도 관련해서 사용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인다. 또한 신뢰나 믿음이란 말의 동의어로도 쓰인다. 재미있는 것은 구약에는 '믿음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표현 대신에 '아웨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다(시 112:1; 115:13; 128:1). 아웨를 경외하는 자는 물질적인 복을 받아서 풍요로운 삶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복중의 복은 역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인데 이 특권은 아웨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욕기와 잠언에서는 '아웨 경외'는 인생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지혜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전적인 신뢰인 동시에 모든 인간 행위에 대한 도덕적 근본원리가 된다. 같은 지혜서인 전도서에서는 아웨 경외가 인간의 허무를 극복하고 삶의 의미를 되찾아 주는 핵심적 주제로 자리잡고 있다. 아웨경외는 기독교 윤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나님이 인간 삶의 규범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 분을 경외하는 것은 개인윤리, 직업윤리, 사회윤리와 같은 윤리적 규범을 준수하는 동기가 된다. 이 동기가 사라질 때 자기 중심적 행위가 나타난다. 끝으로 본고는 '아웨 경외'가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세속화에 대한 적절한 처방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가치 기준이 상대화되는 포스트모던 시대에도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개념임을 역설한다.

Abstract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meaning of the fear of Yahweh and to underscore its relevance. The term 'fear' is derived from the Hebrew root, סָּׁרָ , whose etymology is uncertain. The precise meaning of this word can be elucidated only in the specific context since it can have a variety of connotation even in a short text such as Jonah 1:5-16.

Basically, the term 'fear' stands for a feeling of terror for God in the heart of man that distances him from God. God sometimes becomes an object of terror for man. However, the fear of Yahweh in Deuteronomy is interwoven with the concept of the love for Yahweh. Its close relationship to love is natural because the fear of Yahweh should be proven by obedience to Yahweh.

Furthermore, the term, 'fear' is employed to denote 'worship', by putting the expression, 'to serve Yahweh' along side with it (Deut. 6:13; 1Sam. 12:14, 24; 2King. 17:33, 36). It is used synonymously with the terms, 'trust' or 'belief' as well.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locution, 'blessed are those who fear Yahweh' is used and not the expression, 'blessed are those who are faithful' (Ps. 112:1; 115:13; 128). Those who fear Yahweh are guaranteed to affluent lives by blessing. Above all, the most significant blessing is intimacy with God which is given as a privilege to those who fear Yahweh.

신득일, 고신대학 및 동대학 신학대학원에서 석사학위(M.Div.), 동대학원에서 신학과를 수료하고 (Th.M.과정), 화란 캄펜신학교 대학원에서 구약학(Th.Drs.)과 남아공 Potchefstroom 대학원에서 구약학 수학(Th.D.Can.). 현재 고신대 신학과 구약학 교수로 재직. 저서 및 역서로 <성경 히브리어 문법> (고신대 출판부), <욥기강해> (고신대 출판부), <설교학강의> (기독교문서선교회), <성경지리학개론> (기독교문서선교회)의 다수가 있음.

The books of Job and Proverbs describe the fear of Yahweh as a wisdom which is able to eventually solve problems of life. This wisdom is not only man's total trust in God but also a moral principle for human behaviour. The fear of Yahweh is a central theme in Ecclesiastes, which is a part of Wisdom literature, and which helps to find the meaning of life, by overcoming human vanity.

The fear of Yahweh plays a cardinal part in the field of Christian ethics also. To fear Him motivates us to observe individual and social ethical norms because these norms originated from God. However, human centered behaviour emerges when this motivation is absent.

Finally, this article maintains that the fear of Yahweh is not simply an eternal and proper prescription to secularization but also a substantial idea offering an absolute standard for post-modern times when every value is relativized.

1. 서언

일반적으로 두려움이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힘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불안한 감정이라고 볼 수 있다.¹⁾ 성경에 나타나는 두려움의 대상은 죽음 (창 32:12; 렘 26:21), 원수 (출 14:10; 삼상 17:11, 24; 왕하 10:4), 속박 (창 43:18), 위협(삼하 3:11), 권위 (삼상 3:15) 등이다.²⁾ 인간에게 나타나는 두려움이나 공포의 이런 다양한 대상은 자신의 운명이나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두려움 자체는 인간의 불안한 감정을 표시하는 것으로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 될 때 이 감정적 표현은 종교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 의미는 달라진다. 물론 숭배의 대상이 비인격체일 경우에는 그 말은 공포의 성격을 지닐 수 있지만 그 말이 성경에 언급된 인격적인 아웨 하나님과 연결될 때는 긍정적인 의미가 부각된다 (창 22:12; 수 4:24 등).

오히려 성경은 자연이나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금지사항으로 언급하고 (출 14:13 등),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명령으로 권장하고 있다 (레 19:14 등).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 백성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태도에 속한 것으로 이해된다.

구약의 '아웨 경외' 또는 '하나님 경외'에 대해서 고찰하는 본고는 어원연구와 더불어 그 의미와 관련된 범주를 따라서 본문에 대한 주석적 설명을 함으로써 이 주제의 현실적 중요성을 드러낼 것이다.

1) Cf. Gunter Lanczkowski, Furcht, *Theologische Realenzyklopadie* 11, p. 755.

2) Cf. Sigfried Plath, *Furcht Gottes: Der Begriff אָרַם im Alten Testament*, Stuttgart: Calwer Verlag, 1963, pp. 14-23.

2. נָרָ' 의 어원과 용법

한글 성경에 ‘공경하고 두려워함’이란 뜻을 지닌 낱말인 ‘경외’는 히브리어 원형 נָרָ'(yr')를 번역한 것이다. נָרָ'의 어원은 확실하지 않지만 Oosterhoff는 원래 ‘혈떡이다’란 의미일 것이라고 하면서 아랍어 *wariha*(숨이 찬), 아랍어 נָרָ' (허파)와 히브리어 נָרָ'(보다)를 제시했다.³⁾ Becker는 נָרָ' (떨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동사의 원래 의미는 시편 76편 9절의 단어에 나타난다고 했다.⁴⁾ Joüon은 아랍어 *wa'ara*(떨다, 도주하다)가 원래 의미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두려움과 도망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다.⁵⁾ 그러나 Fuhs는 그런 아랍어 병행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는 동사 *wa'ara*는 ‘뒤로 밀치다, 치다’를 뜻하는 *wara'a*의 어근변형일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히브리어 נָרָ'는 아랍어 *wari'a*(경건한)와 관련된 것으로 본다.⁶⁾ 그러나 이 아랍어 단어는 어원이라기 보다는 히브리어 단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사실 히브리어 어근과 상관없이 사용되는 ‘경건한’이란 의미를 지닌 일상적인 아랍어 용어는 *ṣālihun*이다. נָרָ'에 대한 현대 아랍어의 동의어로는 *ḥaufun* (fear), *ra'aba* (terrified)와 *karīm* (respectable)⁷⁾과 같은 단어가 있다.

BDB 사전은 נָרָ'의 아캇어의 어근으로 *irū*를 제시하지만 그 용례를 고대문헌에서 찾기 어렵고 Ahw와 CAD 사전에는 이 단어가 빠져있다. 그

대신 아캇어의 동의어로 동사 *palāḥu* (두려워하다), 명사 *puluḥtu* (두려움)가 쓰였다. 바벨론 창조신화에서 명사 *puluḥtu*는 항상 마르둑의 갑주나 인간 전갈들이나 티아맛의 용들에 의해 확산된 공포의 능력이라는 의미로 쓰였고, 길가메쉬 서사시에서 동사 *palāḥu*도 주로 두려움에 떨다는 의미로 쓰였다. 그런데 형용사 *palḥu*와 *pālib*는 항상 제의적 의미와 존경과 경배의 의미를 지닌다.⁸⁾ 그래서 아캇어의 경외란 신들과 왕의 면전에 선 인간의 근본적인 태도로 정의한다. 그것은 바른 행위를 위한 두려움 뿐만 아니라 바른 제의적 의식을 통하여 권력에 의해서 세워진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신적인 능력과 거리를 두고 두려운 능력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밝힐 수 없고, 예견할 수 없는 두려운 반응과 관련된 것이다.⁹⁾

히브리어 נָרָ'는 모든 품사를 통틀어 구약에 436번 나타난다.¹⁰⁾ 이 단어의 동사형태는 333번 나오는데 특별히 이 단어의 목적어가 하나님과 관련된 표현은 약 80퍼센트가 된다.¹¹⁾ 동사외에도 여성 명사 연계형과 하나님을 뜻하는 말과 나란히 써서 내용상 하나님을 목적으로 갖는 경우도 많다. 즉, ‘아웨 경외’ (נָרָ' אֱלֹהִים), ‘주를 경외하는 것’ (נָרָ' אֱלֹהִים), ‘하나님 경외’ (נָרָ' אֱלֹהִים)란 표현이 그렇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다양한 문서나 상반된 개념의 차이를 두는 표현이 아니라 상호 교호적으로 쓰인 것이다.¹²⁾

8) Louis Derousseaux, *La crainte de Dieu dans l' Ancien Testament*, Paris: Les éditions du Cerf, 1970, pp. 43-51.

9) Ibid., p. 58.

10) Cf. H. P. Stähli, נָרָ', in: *Theologische Handbuch zum Alten Testament I*,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71, pp. 765f.

11) Cf. M. V. Pelt /W. C. Kaiser, Jr., ary in: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and Exegesis II*, VanGemeren (ed.), 1997, pp. 527-533.

12) Th. C. Vriezen, *Hoofdlijnen der theologie van het Oude Testament*, Wageningen: Veenman en Zonen, 1977, p. 194; H. A. Brongers, *La crainte du Seigneur (Jir' at Jhwh, Jir' at 'Elohim)*, *Oudtestamentische Studieën 5*, 1948, p. 163.

3) B. J. Oosterhoff, *De Vreze des Heren in het Oude Testament*, Utrecht 1949, p. 8.

4) J. Becker, *Gottesfurcht im Alten Testament*, AnBibl 25, Romae: E Pontificio Instituto Biblico, 1965, p. 1.

5) Paul Joüon, S. J., *Crainte et peur en hébreu biblique*, *Biblica 6*, 1925, p. 175.

6) H.F. Fuhs, נָרָ': in: G. Johannes Botterweck & Helmer Ringgren (ed.), *Theologisches Wörterbuch zum Alten Testament*, 1982, p. 870.

7) Cf. M. Debahy, *Dictionary of Hebrew Verbs: Hebrew-Arabic with an index of the arabic equivalents*, Beirut: Librairie Du Liban, 1970, p. 26.

아웨를 경외한다고 할 때 ‘경외한다’는 말 자체는 일반적으로 ‘두려워하다,’ ‘공경하다,’ ‘예배하다,’ ‘신뢰하다’란 의미로 쓰였다.¹³⁾ 하나의 단어가 요나서의 짧은 본문에서도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사공이 두려워 하여(יִרְאוּ)”(1:5);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יִרְאוּ)”(1:9);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יִרְאוּ)”(1:10);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יִרְאוּ)”(1:16). 그래서 ‘아웨 경외’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문맥 가운데서만 파악할 수 있다.

3. 아웨 경외와 공포감

יִרְאוּ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쓰면서도 공포의 의미를 지닌 말로 쓰인 경우도 있다. 사무엘하 6장 9절은 “다윗이 아웨를 경외했다”(וַיִּירָא דָּוִד אֶת־יְהוָה)고 한다. 이때 경외의 의미는 역사서 다른 본문의 경외와는 달리 ‘두려워하다’란 뜻이다. 옷사가 법궤를 붙들었을 때 그가 율법을 범함으로써(민 4:15)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는 공포의 분위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Stähli는 이 두려움을 성물과 관련된 것으로 분류한다.¹⁴⁾ 그러나 다윗이 아웨를 두려워한 것은 성막이나 법궤 자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옷사의 죽음으로 인한 것이다. 사실 다윗도 법궤를 운반하는 국가적인 행사를 주도하면서 출발부터 잘못된 방법으로 시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에게도 미칠까봐 두려워했던 것이다.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과 대화할 수 있는 인격적인 분이시지만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13) Cf. David J. A. Clines(ed.), *The Dictionary of Classical Hebrew IV*,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8, pp. 276ff.

14) H. P. Stähli, op.cit., p. 770.

또 다른 경우는 출애굽기 20장 20절의 하나님의 강림과 관계된 것인데, 이 구절에는 두 개의 יִרְאוּ가 상반된 개념으로 쓰였다: “두려워 말라... 너희가 그를 경외하여”(לֹא־תִירָאוּ אֶת־יְהוָה אֱלֹהֵיכֶם כִּי־יִרְאוּ).¹⁵⁾ 첫 번째 단어는 공포심과 관련된 것이다. 하나님의 현현이 너무도 장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접근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미천한 인간에게는 죽음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백성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모세가 백성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강림하셨지만 그것은 생래적 인간에게는 공포를 일으킬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4. 아웨 경외와 예배

아웨만을 그리고 그를 성심으로 예배하는 것은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중심부를 차지한다. 구약은 ‘경외’라는 말을 써서 예배에 관한 지침을 주고 있다.

사무엘은 예배의 대상을 지칭하면서 ‘아웨 경외’란 말을 썼다(삼상 12:24): “아웨만 경외하라”(וְאֶת־יְהוָה אֱלֹהֵיכֶם יִרְאוּ). 사무엘은 자신의 고별사의 결론으로 아웨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베푸신 출애굽을 통한 구원의 은혜와 가나안 땅 정령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을 상기시키면서 아웨만을 예배할 것을 명령했다. 다른 신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말이

15) War:yT', qal. jussive. 2. m. pl; /ʔta:r yI는 접미사가 목적 소유격(objective genitive)으로 결합된 형태 Cf. Kön § 37(Friedrich Eduard König, *Historisch-kritisches Lehrgebäude der hebräischen Sprache*, Hildesheim: Georg Olms Verlag, 1979); GK § 135m (W. Gesenius, *Hebräische Grammatik*, ed. E. Kautsch, Leipzig: Verlag von F. C. W. Vogel, 1909²⁸)

다. 여기서 ‘경외’란 제의적인 섬김을 의도한 것이 때문에 ‘예배’로 대체할 수 있는 말이다.¹⁶⁾ 열왕기상 17장 39절의 “오직 너희 하나님 아웨를 경외하라”란 명령도 같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cf. 사 8:12-13; 은 1:9).

제의적인 성격을 가진 표현은 신명기에서도 나타난다. “네 하나님 아웨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기 위함이라”(신 14:23)는 말은 아웨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고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는 것이 목적이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적 풍요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규정된 임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아웨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라”(יִתְּנֵם לַיהוָה אֱלֹהֵיכֶם וְעָבְדוּם)는 표현은 족장들의 신앙적 행위와 관련된 유서깊은 도시인 세겟에서 아웨와 백성간에 맺은 언약의 내용이다(창 12:6-8; 33:20; 35:4).¹⁷⁾ 여기서 ‘섬기다’란 동사와 나란히 쓰인 ‘경외’란 말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애굽에서 신들을 섬기던 것(겔 20:8)과 대조적인 개념으로 쓰였다. 여호수아와 아웨와 맺은 언약의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아웨 경외’라는 표현에 함축되어 있다. 이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약속의 땅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아웨의 은혜에 걸맞게 언약의 관계를 신실하게 유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 언약은 다른 신들을 결단코 섬기지 않고 아웨만 섬기는 신앙의 배타적인 성격이 주종을 이룬다. 여호수아는 그의 설교 첫머리에서 사용한 ‘아웨 경외’의 개념에서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웨께로 향하라’란 결론을 이끌어내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타난 ‘아웨 경외’의

의미는 ‘섬기다,’ ‘경배하다,’ ‘마음을 아웨께로 향하다’란 의미로 쓰였다. 특별히 Kroeze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제의(כּוֹלֵר colere)에서 나타난다고 지적했는데,¹⁸⁾ 물론 제의가 종교적인 삶의 중심이긴 하나 본문의 ‘아웨 경외’를 제의에 한정시킬 필요는 없다. 그것은 예배와 더불어 삶의 전 영역에서 아웨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아웨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용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너희가 그를 경외하여”(יִתְּנֵם לַיהוָה)는 처음에 언급된 ‘경외’가 단순한 두려움을 뜻하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두려움을 말하는데 이것은 일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당하고, 거룩한 두려움을 뜻한다.¹⁹⁾ 그 결과로 백성들은 범 죄하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범 죄는 윤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관련된다.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될 것을 염려하여 모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다. 문맥상 이것은 십계명 중 둘째 계명과 관련된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이 본문의 경외는 바르게 예배하라는 의미를 지닌다.

특별히 예배의 태도와 관련해서 경외란 말이 쓰인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구약은 백성들이 두려움으로 그 앞에 나아가 섬길 것을 권한다. “아웨를 경외함으로 섬기라”(시 2:11, יִתְּנֵם לַיהוָה אֱלֹהֵיכֶם)는 명령은 우주의 주권자이신 아웨와 그 종을 대적하는 교만한 세상의 왕들과 관원들이 아웨의 심판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주어진 것이다.²⁰⁾ 그러나 이러한 경외심은 권세있는 왕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은 아

16) Cf. B. J. Oosterhoff, *op.cit.*, p. 43.

17) 여호수아 24장에 나타난 언약과 관련된 포괄적인 연구는 William T. Koopmans의 박사학위논문에 잘 나타나 있다. *Joshua 24 as Poetic Narrative*, Sheffield: Sheffield Academy, 1990.

18) J. H. Kroeze, *Jozua*, COT, Kampen, Kok, 1968, p. 255.

19) J. P. Hyatt, *Exodus*, Th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 1980, p. 217.

20) H. J. Kraus, *Psalmen 1-59*, Biblischer Kommentar Altes Testament XVI,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8, p. 154.

니다. 창조주와 구속주로서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백성은 상한 심령과 회개와 겸손에 합당한 마음의 태도인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한다(cf. 시 5:7).

‘아웨 경외’란 아웨를 섬긴다는 말과 나란히 쓰여서 (신 6:13; 삼상 12:14, 24; 왕하 17:33, 36) ‘예배하다’란 의미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예배의 방법과 태도와도 관련해서 사용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인다.

5. 아웨 경외와 믿음

믿음은 인격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약에는 믿음의 동의어로서 경외라는 말이 많이 쓰인다. 창세기 22장 12절의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וַיִּירָא אֱלֹהִים אֶת־אֲבְרָהָם)은 말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의 사자로 부터 받은 평가다. 이 문맥에서 하나님 경외(וַיִּירָא אֱלֹהִים)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증표의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 맡기고 순종한 신앙적 행위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것이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 경외라는 말은 단순한 두려움이나 공경이 아니라 전적인 헌신과 순수한 믿음을 뜻한다.²¹⁾

21) 이 절의 וַיִּירָא, וַיִּירָא (이제 내가 아노라)는 하나님의 전지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 말을 아웨의 사자의 말로 이해하든지, 아니면 시리아어 페쉬타와 같이 ‘내가 알려주었다’로 번역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Cf. Martin Parmentier, Der Satzteil ‘jetzt habe ich erkannt ...’ (Gen. 22:12) in jüdischer und christlicher Überlieferung, *Bijdragen, tijdschrift voor filosofie en theologie* 56, 1995, pp. 362-368.

22) *qāter* 형인 אֱלֹהִים는 동사의 기능을 가진 형용사로서 목적어를 가진다. Cf. Kon §241i; GK §116g; Jouon §1211(Paul Joüon, S. J., *De l' hébreu biblique*, Rome: Institut biblique pontifical, 1965).

23) Cf. E. A. Speiser, *Genesis*,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64, p. 163.

같은 의미로 창세기 42장 18절에서는 요셉이 형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אֲנִי יִירָא אֱלֹהִים)고 했다. 하나님이 특별히 강조된 이 명사문은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지속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이다. 이 말로써 자기 스스로 신뢰할 만한 사람인 것과 관대함을 나타내면서 형들을 안심시켰다. 물론 그 순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믿는 신이 애굽신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적어도 요셉의 제안이 초월자에 대한 신뢰에 기초한 것인 줄 알고 어느 정도는 신뢰했을 것이다.

요단강을 건넌 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아웨께서 홍해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하신 목적을 언급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아웨를 영원히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שׁוּרְיָ אֱלֹהֵי יְהוָה לְעַלְמֵי עַד לְמַעַן יִירָא אֱלֹהִים אֶת־אֲבְרָהָם)란 말에서 완료, 2인칭 복수형인 אֱלֹהִים은 구약에서 유일하게 여기서만 쓰인 표현이다. לְמַעַן의 지배를 받으면서 완료형으로 쓰인 것은 특이하다. Aryaprateeb는 이 본문을 ‘신명기 사가’에 의한 것으로 보고 신명기에 나타나는 아웨의 경외가 특별히 언약적 규정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²⁴⁾ 그러나 이것은 신명기 역사가의 편집 때문이라기 보다는 바로 앞의 책인 신명기 율법을 적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 본문의 ‘아웨 경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언약과 백성의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²⁵⁾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시기적으로²⁶⁾ 큰 자연적인 장벽이 되었던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백성의 헌신을 요구한다. 그래서 이

24) K. Aryaprateeb, A Note on YR' in Jos. IV 24, *Vetus Testamentum* 22, 1972, pp. 240-242

25) Richard S. Hess, *Joshua*,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Leicester: IVP, 1996, p. 116.

26) ‘요단이 모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수 3:15)란 상황 설명은 봄에 레바논 산맥의 눈이 녹아서 요단강 물이 불어나는 사월 말부터 오월 중순까지 계속되는 추수기를 말한다.

‘경외’란 단순한 두려움이나 존경이 아니라 단 마음으로, 배후신 은혜에 대해서 전심으로 드리는 충성과 헌신을 말한다. 이것은 예수께서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풍성한 생명을 얻어 헌신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

이와같이 ‘아웨 경외’란 표현은 신뢰나 믿음이의 동의어로도 쓰인다.²⁷⁾

5. 아웨 경외와 사랑

경외란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말로 쓰이는 반면에 사랑이란 거리감을 없애는 친근함을 뜻한다. 그런데 상반되는 이 두 개념 즉 아웨를 경외하라는 요구와 사랑하라는 요구가 신명기에는 결합되어 있다.²⁸⁾

우선 신명기에서 말하는 ‘아웨를 경외하는 삶’은 아웨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태도로 요약할 수 있다. ‘쉐마 이스라엘’의 배경으로 볼 수 있는 신명기 6장 초두에 언급된 ‘아웨 경외’가 율법에 대한 순종을 전제로 한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날을 장구케 하기 위한 것이라”(6:1, 2, 한글개역판). 그런데 한글 번역은 아웨를 경외하는 것과 율법을 준수하는 것 간의 관계가 불분명하다. 2절의 히브리어 문장 $\text{לְאֱלֹהֶיךָ לְשׂוֹמֵר אֶת יְהוָה אֱלֹהֶיךָ כְּלֹל חֻקֹּתָיו וּמִצְוֹתָיו}$ 에 לְאֱלֹהֶיךָ 은 전치

사가 부정사 연계형과 결합한 것인데 이 용법은 분사나 동명사의 기능을 가진다.²⁹⁾ 여기서는 분사로 보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으로 번역하기 보다는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므로써 아웨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하여”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 이것은 아웨를 경외하는 삶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말이다(cf. 4:10; 8:6; 17:19). 그 순종은 단순한 외적인 복종이 아니라 마음으로 부터 우러나는 순종을 의미한다(5:29).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내적인 자세를 말하며 그분을 친근히 대하는 태도(רֵחַב)를 가리킨다.³⁰⁾ 경외는 한편으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둔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친근한 태도를 요구한다(10:20; 13:4). 바로 이 관계가 사랑의 관계다.

신명기에서는 이 사랑이 아웨를 경외하는 동기가 된다. 아웨께서 조상들과 그 후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웨를 경외하라고 충고한다(10:12). 아웨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겨우 칠십명의 조상으로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심으로 백성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백성들은 아웨를 경외해야 했다(10:22).

사실 구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종교는 마음을 다하여 아웨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법가운데 집약되어있다(신 6:4-5). 또한 그 사랑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두려움의 성격을 지닌 언약적 요구가 부과된다.

이와같이 신명기에 나타나는 아웨에 대한 사랑이란 아웨를 경외하는 것과 분리되지 않는다(cf. 6:2, 13; 10:20; 28:58).³¹⁾ 진실하고 절대적 사랑

27) Cf. Th. C. Vriezen, op.cit., p. 175.

28) Cf. Walther Zimmerli, *Grundriss der alttestamentlich Theologie*, Fünfte Auflage, Stuttgart, Berlin, Köln, Mainz: W. Kohlhammer, 1985, p. 127.

29) GK § 114, f.

30) H.F. Fuhs, op. cit., p. 874.

31) S. Terrin, Fear, in: G. A. Buttrick,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2, Nashville: Abingdon, 1981, p. 258; W.L. Moran, *The Ancient Near Eastern*

이란 완전한 순복을 뜻하고, Köhler가 정의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순종이다”³⁷⁾ 라는 말을 고려한다면 사랑과 경외는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6. 아베 경외와 행복

구약은 주로 두 가지 단어로 복을 나타낸다. 그것은 בְּרָכָה 와 שְׂמֵחָה 인데 한글성경에는 별 구분없이 쓰였다. 어원적으로 보면 בְּרָכָה 은 그 어원이 ‘무릎’, ‘무릎을 꿇다’³⁸⁾ 를 의미하는데 원래 복이 우월한 존재로부터 오는 것으로 이해한 것 같다. שְׂמֵחָה 는 ‘가다’³⁹⁾란 어원적 의미를 가지는데 이것은 복을 누리는 상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Mowinckel은 이 두 단어를 동의어와 같이 구분없이 쓴다.³⁹⁾ 반면에 Kraus는 בְּרָכָה 을 성스러운 의식에 사용되는 것으로 שְׂמֵחָה 는 세속적으로 개방된 개념으로 구분했다.³⁶⁾ 한글도 어느 정도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성도의 삶의 영역에 국한될 때는 복 (blessing)과 행복 (felicitas, salus)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여러 시편에서 보는데로 ‘복을 주다’라고 표현할 때는 בְּרָכָה 을 쓰지만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는 שְׂמֵחָה 를 쓰기 때문이다 (시 1:1; 2:12; 32:1, 2; 33:12; 34:9; 40:5; 41:2; 65:5; 84:5, 6, 13; 89:16 등).

Background of the Love of God in Deuteronomy, *Catholic Biblical Quarterly* 25, 1963, p. 78.

32) L. Köhler,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 Tübingen:Verlag von J. C. B. Mohr, 1936, p. 38.

33) Scharbert, J., בְּרָכָה in: G. Johannes Botterweck & Helmer Ringgren (ed.), *Theologisches Wörterbuch zum Alten Testament I*, Stuttgart: W. Kohlhammer, 1973, p. 811.

34) H. Cazelles, שְׂמֵחָה , in: G. Johannes Botterweck & Helmer Ringgren (ed.), *Theologisches Wörterbuch zum Alten Testament I*, 1973, p. 481.

35) Sigmund Mowinckel, *Religion und Kultu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53, p. 57.

36) H. J. Kraus, op.cit., p. 134.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구속 행위로 얻은 생명과 그 생명을 보존하고 누리는데 필요한 지속적인 보살핌을 뜻한다. 이스라엘에게 복이란 능력을 뜻하는데 삶을 영위하고 향상시키며, 수확과 자손의 번성과 성취등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요구되는 것을 충족시키는 힘이다.³⁷⁾ 하나님은 족장들에게 그 복을 주시고 약속하셨다. 재산과 부 (창 24:35; 26:12), 후손 (창 28:3), 땅에 대한 약속 (35:12). 신명기 7:12-16에는 번영과 풍요, 생육, 건강과 승리를 말하고 있다. 제 1 동굴에서 발견된 쿠파란 문서 (1QS, The Manual of Discipline)는 민수기의 제사장 축복을 담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가 네게 모든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시길’ ($\text{בְּרַכְתָּהּ בְּכֹל טוֹב}$)이라는 확대된 본문으로써 유대 공동체가 제사장 축복에서 이해한 복의 의미를 보여 준다.³⁸⁾ 즉 복은 ‘좋은 것’과 관련된다.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복은 신명기 28:1-14에 구체적으로 잘 요약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삶의 행복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그런데 구약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믿음이라는 말을 결부시키지 않는다. 믿음이란 말에 대해서 Westermann은 “이 축복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도 않고 믿음과 아무 관련도 없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가 구약에서 창조주와 창조에 대해서 언급하는 곳에서도 믿음이란 낱말을 찾을 수 없다”고 한다.³⁹⁾ 사실 구약에는 믿음이란 말과 복을 연결

37) Friedrich Horst, Segen und Segenshandlungen in der Bibel, in *Gottes Recht*, Theologische Bücherei, Muchen: Chr. Kaiser, 1961, pp. 194-197; Sigmund Mowinckel, op.cit., pp. 64f.

38) Florentino García Martínez & Eibert J. C. Tigchelaar (ed.), *The Dead Sea Scrolls Study Edition*, Leiden: Brill, 1997, Col. II:2-4. The Manual of Discipline에 기록된 제사장 축복: 그는 너를 모든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시고 모든 악한 것에서 지키시기 원하며 그는 너의 마음을 삶의 지혜로 비추사 영원한 지식으로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그는 그 은혜로운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영원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39) Claus Westermann, *Der Segen in der Bibel und im Handeln der Kirche*,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68, p. 19.

시키는 대신 그 개념을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경외란 말을 복과 결부시킨다.

구약은 '믿음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아웨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다(시 112:1; 115:13; 128:1). 여기서 복에 올 범준수가 자주 첨가 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것이 아웨를 경외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아웨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은 제사장 축복(민 6:24-26)과 같은 내용을 담고있다. 먼저 하나님의 보호가 아웨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으로 주어진다: "아웨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시 34:7). 반대로 아웨를 경외치 않는 자는 보응을 받는다(시 55:19). 아웨의 지키시는 보호가 얼마나 안전한가는 아웨 경외가 생명의 근원으로 표현되는데서 절정을 이룬다: "아웨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웨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 14:26, 27). Zimmerli는 이 구절을 "아웨를 두려워하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아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고 결론 짓는다.⁴⁰⁾ 이것은 기독교의 역리적인 진리를 잘 표현한 것이다(마 16:25).

아웨를 경외하는 자는 물질적인 복을 받아서 풍요로운 삶을 보장받는다.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반드시 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구약은 물질적 풍요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주려고 한다. 풍요로운 삶에 대한 약속은 보통 사람의 고정관념과 상상을 초월하여 아웨를 경외하는 자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고 시편은 강조하고 있다(34: 9, 10; 111:5). 거기다가 소원성취를 통하여 운택한 삶을 강화시켜 주신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시 145:19). 이와 같이 제사장 축복에서 언급된 대로 아웨를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는 은혜(חַסֵּד)가 하늘 만큼이나 크다고 시편기자는 찬송한다(시 103:11).

그러나 이 모든 복을 능가하는 복은 역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자, 이스라엘의 영원한 소망이다. 제사장 축복에서는 '얼굴을 비취는 것'에 해당한다. 하나님을 마주대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약속하셨다: "아웨의 비밀(סֵּתֵר)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도다" (시 25:14). סֵּתֵר는 신뢰할 만한 가장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끼리 비밀 이야기를 주고 받는 것을 말한다.⁴¹⁾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자신의 은밀한 것을 나누어 주실 정도로 놀라운 특권을 부여하셨다. 아웨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가장 가까이서 받아누리며 교제를 나누는 특별한 관계를 보장받는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시 73:28). 이 행복은 아웨를 경외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7. 아웨 경외와 지혜 / 지식

'아웨 경외'는 지혜서의 중심 주제다. 물론 이 사상은 시편에도 나오는 데 이 시편을 '지혜의 시'라고도 한다(시 111:10). 지혜서는 율법서나 역사서와는 다른 문학적 형식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학양식의 비역사적인 성격 때문에 지혜서를 주석할 때 구약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 역사성과 율법

40) W. Zimmerli., op.cit. p. 128.

41) W. Baumgartner & J. Stamm,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Lexikon zum Alten Testament* III, Leiden: E. J. Brill, 1983, p. 703. סֵּתֵר를 한글 개역성경은 '친밀함', KJV는 'secret', NIV는 'confide in' 이라고 동사로 풀어서 번역했다.

적 요소를 소홀히 하는 것이 현실이다.⁴²⁾ 그렇지만 지혜서는 내용이나 사상적으로 역사적인 요소가 배제되었거나 율법과 무관한 성격을 지닌 책이 아니다. 백성들이 경외해야 할 아웨는 역사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고, 백성들이 가져야 할 지혜는 아웨의 구속역사에 대한 반응이며 이 지혜는 또한 율법을 일반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역사와 율법이 이 지혜서에 융해되어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욥은 지혜를 논하는 28장에서 '주 경외' (יְהוָה יִירָא)⁴³⁾ 를 언급한다. 이 말이 욥기 전체에서 '아웨 경외'의 절정을 이룬다.⁴⁴⁾ 이 장에서 욥은 시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보화를 캐내는 인간의 능력이나 짐승의 예리한 본능으로도 지혜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혜는 세상의 어떤 귀한 것 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진 것이라고 하면서 그 절대 가치를 주장한다 (15-19). 문맥상 그가 말하는 지혜는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을 가르쳐주는 지혜를 의미한다. 그것은 곧 자신의 딜레마에 대한 해답이다. 이런 지혜는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그 있는 곳을 아신다고 했다. 물론 이 말은 지혜가 하나님 밖에 존재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인간이 지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지혜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창조세계의 거대한 매카니즘속 어디에서나 발견되는데 (23-27), 그것을 특정한 장소에서 발견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는 감추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⁴⁵⁾ 그것을 찾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주를 경외함이

42) W. P. Brown, *Ecclesiastes*, Interpretation,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0, pp. 11f.

43) 이 히브리어의 결합은 구약 성경에서 한번 밖에 나오지 않는 표현이다

44) Lindsay Wilson, *The Book of Job and the Fear of God*, *Tyndale Bulletin* 46.1, 1995, p. 62.

45) Paul S. Fiddes, "Where Shall Wisdom Be Found? " Job 28 as a Riddle for Ancient and Modern Readers, in: J. Barton & D. J. Reimer(ed.), *After the Exile: Essays in Honour of Rex Mason*, Macon, Georgia: Mercer University Press, 1996, pp. 179ff.

곧 지혜다" (28:28).

용어에 있어서 '주' (יְהוָה)라고 쓴 것은 내용상 하나님이나 아웨와 같다. 다만 지혜가 지니는 보편성을 의식해서 아웨라는 이름 대신에 '주' 라고 언급한 것 같다. 문맥상 욥이 말하는 '경외'는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신뢰하며 끝까지 따르는 것을 의미하다. 욥은 스스로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자기를 대적으로 여기며(13:24), 진노하시며 군박한다고 했다 (16:9). 그가 의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이 곧 지혜라는 것이다. 고통을 주시는 그 분께 피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 방법이라는 말이다 (13:20). 욥은 자신을 지혜의 본으로 제시한 셈이다 (1:1, 8; 2:3; 13:20; 42:8).⁴⁶⁾ 욥의 경우를 볼 때 이 지혜가 인간이 겪는 모든 종류의 고난에 대한 원인을 알려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지혜가 궁극적으로 인생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된다.⁴⁷⁾

그런데 욥이 말하는 '경외'에 대한 정의와 잠언에서 말하는 '경외'의 등식은 다르다. 욥은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다"라고 했고 잠언은 "아웨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지식)⁴⁸⁾의 시작(תְּחִלָּתָהּ)이다" (잠 1:7; 9:10 cf. 시 111:10)라고 한다. 욥은 '하나님 경외'를 지혜라고 통틀어서 말했고, 잠언은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다.

시작이라는 말은 아웨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끝이 아니라는 말이다. 또한 그 경외가 지혜를 포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시작이라는 말은 근본원리가 된다는 뜻이다. 지혜의 근본원리는 인간이 자신의 자원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⁴⁹⁾

46) Derausseau가 욥이 주를 경외하는 것과 신적인 정의에 대한 현명한 가르침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욥기의 전체 내용과 다르다. Derausseau, op. cit., p. 335.

47) C. Bijl, *Zo rijk als Job*, Kampen: Van den Berg, 1989, pp. 63f.

48) 잠언에 지식(יָדָע)과 지혜(חָכְמָה)를 교차해서 쓰기 때문에 이 두 용어는 동의어로 이해한다.

49) C. G. Bartholomew, *Wisdom Books*, in: T.D. Alexander & B. S. Rosner(ed.), *New*

잠언의 목적은 구속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꾸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는데, 그 성공의 열쇠가 바로 지혜다. 그런데 그 지혜는 '아웨 경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⁵⁰⁾ 이 지혜는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다. 지혜 자체는 인간이 복지를 추구하고 불행을 막으려는 본성에 근거하여 축적된 경험에서 나온 것인데 구약은 그 지혜를 인식하는 방법이 경험론적이 아니라 이론 이전의 인식론임을 강조한다.⁵¹⁾ 사실 욥의 세 친구들은 자신의 경험에 기초하여 재난을 당한 욥을 평가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지혜롭게 판단하지 못했다(42:7).

잠언이 지혜의 출발점으로 '아웨 경외'를 강조한 것은 또 다른 출발점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아웨를 경외하는 길을 벗어난 다른 출발점은 어리석은 자의 길인데 잠언은 그 길을 타락한 세상의 악한 길로 규정한다. 특별히 잠언에서 언급하는 지혜는 도덕적 덕목으로 제시되었다. 아웨는 지혜의 원천과 목표가 되시기 때문에 그를 경외하는 경건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지혜의 덕목을 구체화시킴으로써 바른 도덕적 삶을 표현하는 것이다.⁵²⁾

Dictionary of Biblical Theology,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2000, p. 120.

- 50) 최근 연구는 잠언을 오경의 전통을 따라서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1:1; 10:1; 25:1; 30:1; 31:1): Alex Luc, *The Titles and Structure of Proverbs*,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12. 2, 2000, pp. 252-255. 이 가운데 '아웨 경외'는 첫 부분에 6번, 둘째 부분에 12번, 셋째 부분에 1번, 다섯째 부분에 1번 언급될 정도로 잠언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런데 John Day는 잠언의 '아웨 경외' 사상은 바벨론 지혜에서 차용한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신격에 대한 경외 사상은 보편적 현상이다. John Day, *Foreign Semitic influence on the wisdom of Israel and its appropriation in the book of Proverbs*, in: J. Day, R. P. Gordon & H. G. M. Williamson(eds.), *Wisdom in ancient Israel: Essays in honour of J. A. Emert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1995, p. 67.
- 51) Michael V. Fox, *A Time to Tear down & a Time to Build up*,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999, p. 80.
- 52) Leo G. Perdue, *Proverbs, Interpretation*,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0, p. 76.

욕기와 잠언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아웨 경외'는 인생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지혜로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전적인 신뢰인 동시에 모든 인간 행위에 대한 도덕적 근본원리가 된다.

8. 아웨 경외와 허무

인생허무에 대해서는 전도서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한글 개역판의 "헛되다"는 히브리어 단어 לִבְלִי 을 번역한 것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숨결', '증기' 혹은 '비어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말은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인간학적으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베르 까뮈의 작품, '시지프의 신화'에 서술된 의미로 '의미없다'(meaningless, senseless)⁵³⁾란 말로 번역할 수 있다. 그러나 전도서의 정황에 비추어서 '덧없다'(ephemeral)란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⁵⁴⁾

전도자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덧없다고 했다. 전도자는 첫 마디에서(1:2) 이 덧없음을 단어를 반복하여 최상급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לִבְלִי מְלִי). 그는 이 허무를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1:3)라는 수사 의문문에 대한 답변으로 제시한다.

이 허무는 전도자 솔로몬의 경험에 근거한 것이다.⁵⁵⁾ 솔로몬은 이스라

53) Michael V. Fox, *op.cit.*, pp. 27-32.

54) C. L. Seow, *Ecclesiastes*,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97, p. 112.

55) 전도서의 '나'를 저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나'를 역사적인 인물로 보지 않고 시적 인물로 보기 때문이다. O. Loretz, *Zur Darbietungsform der 'Ich-Erzählung' im Buche Qohelet*, *Catholic Biblical Quarterly* 25, 1963, p. 48. 전도서는 시적인 문체로 쓰였다고 해도 산문체가 많고 또 종교적 목적으로 기록된 고대의 문헌을 현대 순수문학의 잣대로 해석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전도서에서 저자 자신이 예루살렘의 왕인 것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1:1, 12) 성경 자중의 원리에 비추어 자서전적인 성격을 배제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엘 역사에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으로 예수께서도 인정하셨다(마 5:29). 그러나 부귀와 권세, 지혜와 쾌락으로 장식된 그의 호화로운 삶에 대한 자신의 평가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허무한 것이었다(1:12-2:26).

인생의 덧없음은 이스라엘을 통일왕국으로서 가장 강한 국가로 만들었던 다윗의 고백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 같다고 했고, 사람마다 성공할 때에도 헛것이며, 헛된 일에 분주하며 재산을 모으지만 누가 그것을 취할런지도 모른채 살아간다고 했다(시 39:4, 5; 한글개역: 5, 6). 여기서 다윗은 인생의 의미와 인생무상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한다. 시편 62편에서는 부자나 탈취한 자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인간은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다 헛된 존재인데 그 무게가 입김(לְבָבִי)보다 더 가볍다고 했다(시 62:8, 9; 한글개역: 9, 10). 인생보다 더 무상한 것이 없다는 말이다.

모세의 시에서도 인생의 자량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비해서 인간의 연수 얼마나 짧은지 날아간다고 했다(시 90:10).

이렇게 허무는 모든 인간이 지니는 시한성과 가변성 때문에 오는 무상함, 비실재성, 망상,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서 불가피하며 통제 불가능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허무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양상은 비관적 염세주의자로 살거나 그것을 세속적으로 극복해보려는 시도에서 비롯되는 쾌락주의자로 사는 것이다. 삶의 양상이 어떠한든 인생 자체 즉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 전도서의 솔로몬도 예외없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한다. 그래도 삶의 향락을 조언한다. 즉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마음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한다(2:24; 3:13; 5:18). 그는 염세주의자가 아니지만 향

락주의자도 아니다. 그가 원하는 세상의 낙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전도서가 주는 총체적인 교훈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를 채우시며, 인생의 수고와 낙을 허락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를 운행하시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진술에 집약되어 있다(3:10-15).⁵⁶⁾

이것은 인생이 허무를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말이다. 그 길은 야웨를 경외하는 것이다. 구조적으로 전도서의 내부의 틀인 허무를 외부의 틀인 '하나님 경외'로 싸고있다.⁵⁷⁾ 전도자는 전도서의 마지막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이 행할 전부이기 때문이다"(전 12:13)라고 결론짓는다. 이 문장 전체가 도치되어서 글의 결론적인 성격과 목적어를 강조하고 있다(רַמְּשׁוּ יְהוָה וְשִׁמְרוּ אֶת־צִוְיֹתָיו). '하나님 경외'는 여기서 처음 언급된 것은 아니다(3:14; 5:6, 한글개역, 7절; 7:18; 8:12).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은 그렇게 확신에 찬 명령을 하지 않았다. 전도자는 여기서 백성들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인도하려는 의도로 '하나님 경외'를 명령한다. 여기서의 경외란 초월적인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영광과 경배를 의미한다.⁵⁸⁾ 율법적 요구와 관련된 명령은 여기서 처음 나오는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계명 준수에 대한 의무를 고려한다면 경외와 율법준수가 결론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신명기에서 언급된 경외와 사랑이 여기서 언급되었다.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야 할 이유를 그것이 인

56) Alexander A. Fischer, *Skepsis oder Furcht Gottes?*, Studien zur Komposition und Theologie des Buches Kohelet, Berlin: Walter de Gruyter, 1997, pp. 228-244.

57) A. G. Shead, *Ecclesiastes From The Outside In*, *The Reformed Theological Review* 55, 1996, p. 27.

58) Cf. Tremper Longman III, *The Book of Ecclesiastes*,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f Old Testament,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998, p. 282.

간의 전부(כֹּל הַיּוֹם וְכָל הַלַּיְלָה)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의미있고, 진정한 행복을 위해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뜻이다.⁵⁹⁾ 이렇게 전도서에서는 하나님 경외가 삶에 대한 확실한 지침으로 주어진 지혜의 총괄적 개념인 동시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에 대한 인간의 답변이 된다.⁶⁰⁾

유한한 인간과 근본적으로 다른, 영원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인간은 허무를 극복하고, 무의미한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이다.

9. 야웨 경외와 윤리

야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윤리적 규범인 율법을 준수하는 동기가 된다. 창세기 20장 11절의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אֵלֹהִים לֹא יָרֵא) 말은 아브라함의 생각에 그랄 지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하지 않기 때문에 살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 경외’가 도덕적, 윤리적 행위의 규범과 연루된 상황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⁶¹⁾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시된 선악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의미로 쓰였다. 같은 의미로 출애굽기 1장 17절에서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즉 하나님을 도덕적 규율과 윤리적 규범의 시여자로 인정하고 그 시여자의 판단을 두려워한 것이다 (cf. 레 19:14; 25:17; 25:36, 43).

59) J. Becker, *op. cit.*, p. 255.

60) Alexander A. Fischer, *op. cit.*, pp. 243f.

61) Nahum M. Sarna, *Genesis: The JPS Torah Commentary*, Jerusalem: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p. 143.

직업윤리와 관련된 직분수행의 동기도 경외와 관련된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이드로가 모세를 향해 “그대는 ... 하나님을 두려워하며”(אֵלֹהִים יָרֵא)라고 했는데 이것은 모세의 재판하는 일과 관련해서 언급한 것이다. 특별히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다”(신 1:17). 이드로가 모세를 평가하는 말에서 하나님 경외란 말을 쓴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그렇게 말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하 19장 9절의 “야웨를 경외하여 이렇게 행하라”(אֵלֹהִים יָרֵא וַיִּשְׁפֹּט כֹּה)에서 경외(אֵלֹהִים)가 한 문맥속에서 7절의 두려움(יָרֵא)과 같은 내용으로 쓰였다.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떨다’, ‘놀라다’란 뜻을 가진 יָרֵא는 종종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뜻하는 אֵלֹהִים와 동의어로 쓰인다.⁶²⁾ 본문은 유다왕 여호사밧이 재판관들이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다. 재판관은 하나님과 같이 불의도 없고, 사람을 차별하지도 않고, 뇌물을 받아서도 안된다. 왜냐하면 재판은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 직무를 행하는데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야웨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는 재판할 때 함께 하시는 야웨 하나님이 법의 시여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도록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관은 야웨를 경외해야 한다. 이것은 야웨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뜻한다. 그 때에 바른 판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윤리와 관련해서 느헤미아가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행해야 할 것이 아니냐”(느 5:9, וְהֵיכָּתִיב לְפָנֵי אֱלֹהֵינוּ וְנִשְׁפָּט)고 귀족과 관리들을 꾸짖었다. 이들은 유다 공동체의 영향력있는 구성원으로서 느헤미야를 도와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자였지만 백성들을 상

62) Cf. K. Roubos, *II Kronieken, De Prediking van het Oude Testament*, Nijkerk: Callenbach, 1972, p. 187.

대로 고리대금업(**Neh** 7절)⁶³⁾ 을 하여 농토와 집을 저당잡고, 자녀를 이방인에게 노예로 팔게하는 일로⁶⁴⁾ 백성의 궁핍을 기증시켰다. 이런 처절한 상황으로 인한 백성들의 원망에 대하여 느헤미야는 '하나님 경외' 라는 말로써 귀족과 관리들을 책망했다. 여기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과 율법에 대한 순종에 대한 동기로서 이 표현을 사용한다.⁶⁵⁾ M. Breneman은 이 표현을 율기와 잠언과 같은 구약의 지혜문학에서 나온 개념이라고 주장한다.⁶⁶⁾ 그러나 그 개념과 용법에는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적어도 지혜문학의 대표적인 문구는 아웨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또는 지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욥 28:28; 잠 1:7). 율법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친절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을 선지자가 책망한다: 이자규정(출 22:25; 레 25:36; 신 23:19), 채무자를 위한 담보규정(신 24:10, 11), 기업의 상황(레 25:27, 28, 41), 동료 이스라엘인이 노예로 전락되는 금지규정(레 25:39, 46), 지도자의 착취에 대한 책망(사 3:14; 암 2:6-8; 미 2:1-3 등).

느헤미야가 과탄의 지경에 빠진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시한 '하나님 경외' 는 이상적인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 법을 따라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친절과 성실로 헌신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아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개인윤리, 직업윤리, 사회윤리

63) M. Breneman, Ezra, *Nehemiah, Esther*,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3, p. 203.

64) 페니키아와 그리스, 아랍상인들의 노예무역은 겔 27:13; 욥 43, 48; 암 1:9에 언급되어 있다.

65) Cf. Werner Kessler, *Gottes Mitarbeiter am Wiederaufbau: Die Propheten Esra und Nehemia*, Stuttgart: Calwer Verlag, 1971, p. 105; J. Blenkinsopp, *Ezra-Nehemiah*, The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8, p. 259.

66) M. Breneman, op.cit., p. 204.

와 같은 윤리적 규범을 준수하는 동기가 된다. 반대로 그 동기가 사라질 때 불법과 편법과 같은 자기 이권을 위한 비윤리적인 행위가 되살아난다.

10. 아웨 경외와 세속화

세속화란 말은 처음에는 국가나 사회에서 교회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을 가리켰다. 또 이 말은 프랑스 혁명 당시 공산주의가 주도하는 영역에서 많이 사용되었고, 수도사가 면책특권을 가지는 것을 가리키기도 했다.⁶⁷⁾ 세속화란 종교, 역사, 철학, 사회, 정치, 과학 등 여러 문화영역에서 다양한 의미를 갖고 사용되었다. 세속화란 '세상' (*mundus*)과는 다른 '세대' (*saeculum*)라는말에서 왔는데 그것은 현상세계를 의미한다. 이것을 성경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세속화란 말은 영원한 세계에 대조되는 개념으로 한시적인 세상에 근거를 둔 삶의 양식에서 비롯된 시대적 현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세속화는 영원한 가치보다는 일시적인 가치를 중요시한 결과로 나타난다.

근원적인 의미에서 세속화는 하나님과 바르지 못한 관계에서 출발한다. 그 결과 하나님의 언약과 상반되는 세속적 가치가 삶을 지배하게 된다. 이것은 개인과 공동체에 다 적용된다. 영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 역사는 한마디로 세속화와의 싸움이었다고 정의할 수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선택된 이스라엘(신 7:7; 14:1; 암 3:2)은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다(출 19:6). 그

67) B. Rietveld, Secularisatie, in: F. W. Grosheide, G. P. Van Itterzon (eds.), *Christelijke Encyclopedie*, Kampen: Kok, 1963, p. 133.

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부합하는 삶은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유지하는 삶인데 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세속화의 길을 걸었다. 가나안 정복과 땅 분배 후 그 백성이 맺은 언약(수 24:21)은 약속의 땅에 완전히 정착하기도 전에 백성 편에서 파기되었다(삿 2:2). 그것은 곧바로 이스라엘의 세속화와 직결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의 거민을 쫓아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이방신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이방인과 혼인하도록 함으로써 언약 공동체를 깨뜨렸다(삿 3:6). 그들은 아웨의 신앙으로 가나안 땅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정착민으로 농경생활을 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가나안 종교와 문화에 의해서 자신이 변화를 받았던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바알 사상은 자연이 모든 생명의 시여자라는 신념으로서 세속적 인본주의를 대표하는 것이다.⁶⁸⁾ 이런 세속화 현상은 이스라엘 역사 초기부터 끝까지 나타났다. 이스라엘의 멸망도 세속화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시대마다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상실한 것은 교회가 세속화되었거나 세속화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 내부에 세상적 가치가 깊숙히 자리잡고 있다는 말이다. 오늘날 모든 영역에서 가속화되는 세속화 현상에 대한 처방으로 Kamphuis 교수는 ‘하나님 경외’⁶⁹⁾ 를 제시한다. 그는 ‘하나님 경외’를 하나의 능력으로 세속화에 대한 답변이라고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교회는 세속화의 거센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의 능력으로 보고 교회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성도는 언약을 떠나 세상이 제시하는 가치관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럴 때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교회는 그 사명을 망각하고 오히려 세상에 의해 교회가 변화될 것이다.

68) James B. Jordan, *Judges*, Eugene, OR: Wipf and Stock Publishers, 1999, p. 35.

69) J. Kamphuis, *Godsvruchten, een kracht: antwoord aan de secularisatie*, Goes, Oosterbaan & Le Cointre, 1990.

‘아웨 경외’는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세속화에 대한 적절한 처방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가치 기준이 상대화되는 포스트모던 시대에도 절대적 기준을 제시한다.

11. 결어

구약에서 피조물에 대해서는 금지사항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권고나 명령형식으로 되어있는 ‘아웨 경외’는 구속받은 백성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태도이다. 경외란 말 자체는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서도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묘한 성격이 있다. 신명기에서는 이 두 개념이 순종을 매개로하여 경외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웨 경외’는 아웨를 섬긴다는 말과 나란히 쓰여서 예배란 의미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예배의 방법과 태도와도 관련되는 포괄적인 개념이며, 신뢰나 믿음이란 말의 동의어로도 쓰인다

자신에게 미치는 결과를 볼 때 구약은 역리적으로 아웨를 두려워하는 자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하고, ‘아웨 경외’가 인생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지혜라고 선언한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인간에게 찾아오는 허무까지도 극복하도록한다.

대인관계에서 아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개인윤리, 직업윤리, 사회윤리와 같은 윤리적 규범을 준수하는 동기를 제공하며, 가치관과 관련해서 ‘아웨 경외’는 세속화에 대한 적절한 처방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것은 구약이 요구하는 신앙의 핵심적 표현이며 그 개념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실성을 지니는 신학적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Aryapareteeb, K., A Note on YR' in Jos. IV 24, *Vetus Testamentum* 22, 1972 (240-242).
- Bartholomew, C. G., Wisdom Books, in: T.D. Alexander & B. S. Rosner(ed.), *New Dictionary of Biblical Theology*,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2000.
- Baumgartner, W. & J. Stamm, *Hebraisches und Aramaisches Lexikon zum Alten Testament* III, Leiden: E. J. Brill, 1983.
- Becker, J., *Gottesfurcht im Alten Testament*, AnBibl 25, Romae: E Pontificio Instituto Biblico, 1965.
- Bijl, C., *Zo rijk als Job*, Kampen: Van den Berg, 1989.
- Blenkinsopp, J., *Ezra-Nehemiah*, OT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8.
- Breneman, M., *Ezra, Nehemiah, Esther*,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3.
- Brongers, H. A., La crainte du Seigneur (Jir' at Jhwh, Jir' at Elohim), *Oudtestamentische Studieën* 5, 1948 (151-173).
- Brown, W. P., *Ecclesiastes*, Interpretation,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0.
- Cazelles, H., אִשְׁרָי, in: *Theologisches Wörterbuch zum Alten Testament* I, 1973 (481-485).
- Clines, David J. A. (ed.), *The Dictionary of Classical Hebrew* IV,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8.
- Day, John, Foreign Semitic influence on the wisdom of Israel and its appropriation in the book of Proverbs, in: J. Day, R. P. Gordon & H. G. M. Williamson(eds.), *Wisdom in ancient Israel: Essays in honour of J. A. Emert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1995 (55-70).
- Debahy, M., *Dictionary of Hebrew Verbs: Hebrew-Arabic with an index of the Arabic equivalents*, Beirut: Librairie Du Liban, 1970.
- Derousseaux, Louis, *La crainte de Dieu dans l' Ancien Testament*, Paris: Les éditions du Cerf, 1970.

- Fiddes, Paul S., "Where Shall Wisdom Be Found?" Job 28 as a Riddle for Ancient and Modern Readers, in: J. Barton & D. J. Reimer(ed.), *After the Exile: Essays in Honour of Rex Mason*, Macon, Georgia: Mercer University Press, 1996 (171-190).
- Fischer, Alexander A., *Skepsis oder Furcht Gottes?*, Studien zur Komposition und Theologie des Buches Kohelet, Berlin: Walter de Gruyter, 1997.
- Fox, Michael V., *A Time to Tear down & a Time to Build up*,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999.
- Fuhs, H.F., אָר in: G. Johannes Botterweck & Helmer Ringgren (ed.), *Theologisches Wörterbuch zum Alten Testament* III, Stuttgart: W. Kohlhammer, 1982 (869-893).
- Gesenius W., *Hebräische Grammatik*, ed. E. Kautsch, Leipzig: Verlag von F. C. W. Vogel, 1909²⁸.
- Hess, Richard S., *Joshua*,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Leicester: IVP, 1996.
- Horst, Friedrich, Segen und Segenshandlungen in der Bibel, in *Gottes Recht*, Theologische Bücherei, Muchen: Chr. Kaiser, 1961.
- Hyatt, J.P., *Exodus*, Th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 1980.
- Jordan, James B., *Judges*, Eugene, OR: Wipf and Stock Publishers, 1999.
- Jouon, S.J. Paul, Crainte et peur en hebreu biblique, *Biblica* 6, 1925 (174-179).
_____, *De L' hébreu biblique*, Rome: Institut biblique pontifical, 1965
- Kamphuis, J., *Godsvruchten, een kracht: antwoord aan de secularisatie*, Goes, Oosterbaan & Le Cointre, 1990.
- Kessler, Werner, *Gottes Mitarbeiter am Wiederaufbau: Die Propheten Esra und Nehemia*, Stuttgart: Calwer Verlag, 1971.
- Kohler, L.,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 Tübingen: Verlag von J. C. B. Mohr, 1936.
- König, Friedrich Eduard, *Historisch-kritisches Lehrgebaude der hebräischen Sprache*, Hildesheim: Georg Olms Verlag, 1979.
- Koopmans, William T., *Joshua 24 as Poetic Narrative*, Sheffield: Sheffield

- Academy, 1990.
- Kraus, H. J., *Psalmen 1-59*, Biblischer Kommentar Altes Testament XV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8.
- Kroeze, J. H., *Jozua*, Commentaar op het Oude Testament, Kampen, Kok, 1968.
- Lanczkowski, Gunter, Furcht, in: Gerhard Kraus & Muller(eds.), *Theologische Realenzyklopadie* 11, Berlin: Walter de Gruyter, 1983 (755-756).
- Longman III, Tremper, *The Book of Ecclesiastes*,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f Old Testament,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998.
- Loretz, O., Zur Darbietungsform der 'Ich-Erzählung' im Buche Qohelet, *Catholic Biblical Quarterly* 25, 1963 (46-59).
- Luc, Alex, The Titles and Structure of Proverbs,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12. 2, 2000 (252-255).
- Martinez, Florentino Garcia & Eibert J. C. Tigchelaar (ed.), *The Dead Sea Scrolls Study Edition*, Leiden: Brill, 1997.
- Moran, W. L., The Ancient Near Eastern Background of the Love of God in Deuteronomy, *Catholic Biblical Quarterly* 25, 1963 (77-87).
- Mowinckel, Sigmund, *Religion und Kultus*, Go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53.
- Oosterhoff, B. J., *De Vreze des Heren in het Oude Testament*, Utrecht 1949.
- Parmentier, Martin, Der Satzteil jetzt habe ich erkannt ... (Gen. 22:12) in jüdischer und christlicher Überlieferung, *Bijdragen, tijdschrift voor filosofie en theologie* 56, 1995 (362-368).
- Pelt, M. V./ W. C. Kaiser, Jr., אָר in: VanGemeren (e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and Exegesis* II, 1997 (527-533).
- Perdue, Leo G., *Proverbs*, Interpretation,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0.
- Plath, Sigfried, *Furcht Gottes: Der Begriff ary im Alten Testament*, Stuttgart: Calwer Verlag, 1963.
- Rietveld, B., Secularisatie, in: F. W. Grosheide, G.P. Van Itterzon (eds.), *Christelijke Encyclopedie*, Kampen: Kok, 1963 (133-135).

Roubos, K., *II Kronieken*, De Prediking van het Oude Testament, Nijkerk: Callenbach, 1972.

Sarna, Nahum M., *Genesis: The JPS Torah Commentary*, Jerusalem: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Scharbert, J., rb in: G. Johannes Botterweck & Helmer Ringgren (ed.), *Theologisches Wörterbuch zum Alten Testament I*, Stuttgart: W. Kohlhammer, 1973 (808-842).

Seow, C.L., *Ecclesiastes*, AB, New York: Doubleday, 1997.

Shead, A.G., Ecclesiastes From The Outside In, *The Reformed Theological Review* 55, 1996 (24-37).

Speiser, E. A., *Genesis*,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64.

Stahli, H.P., אָר, in: Jenni & Westermann(ed.), *Theologische Handbuch zum Alten Testament I*,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71 (765-778).

Terrin, S., Fear, in: G. A. Buttrick(ed.),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2, Nashville: Abingdon, 1981.

Vriezen, Th. C., *Hoofddlijnen der theologie van het Oude Testament*, Wageningen: Veenman en Zonen, 1977

Westermann, Claus, *Der Segen in der Bibel und im Handeln der Kirche*,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68.

Wilson, Lindsay, The Book of Job and the Fear of God, *Tyndale Bulletin* 46. 1, 1995 (59-79).

Zimmerli, Walther, *Grundriss der alttestamentlich Theologie*, Fünfte Auflage, Stuttgart, Berlin, Köln, Mainz: W. Kohlhammer, 1985.

바울의 선교사역과 삶의 본질과 원동력

십자가와 부활이해를 중심으로

The Essence & Source of Power
in St. Paul's Life & Ministry:

Focusing on His Understanding of the Cross and Resurrection

신경규 교수

Prof. Dr. Kyung Kyu Shin

I. 들어가면서	_ 52
III 바울의 선교사역과 삶의 본질	_ 53
III 바울의 선교사역과 삶의 원동력: 십자가와 부활	_ 58
1. 바울 선교의 내용으로서 '십자가의 도'	_ 59
2. 바울 선교의 근거로서의 십자가와 부활	_ 62
3. 바울 선교의 형식과 목적으로서의 십자가	_ 64
4. 바울 선교사역과 삶의 원동력으로서 부활	_ 68
5. 바울 선교사역과 삶의 원동력으로서의 성령의 능력	_ 71
6. 바울의 인격과 삶의 모범: 선교사역과 삶의 열매	_ 74
IV. 맺는 말	_ 77